8월 11일 연중 제19 주일

"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? 행복하여라,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!

루카의 복음. 12,32-48

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다.

"너희들 작은 양 떼야, 두려워하지 마라.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.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.

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 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.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 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.

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.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.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.

행복하여라,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!

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그 주 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,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.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 면, 그 종들은 행복하다!

이것을 명심하여라.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,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다.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.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."

베드로가, "주님,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?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?" 하고 물었다.

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. "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? 행복하여라,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!

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주인 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.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 으로 '주인이 늦게 오는구나.' 하고 생 각하며,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 면, 예상하지 못한 날,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, 그를 처 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.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.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 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 을 것이다.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 이 요구하시고, 많이 맡기신 사람에 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."

묵상

우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매일 만 나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주 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언제나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. 여러분은 'l'esprit d'escalier' 라는 프랑스 표현을 들어 본 적 있나요? 이것은 계단을 올라가 듯 한 박자씩 늦는 유머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 늦게 완벽한 답장이 떠올랐을 때, 이미 방을 떠나 계단 아래에 다다 랐을 때...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. '뭔가 말했어야 했는데...', '도와주었어야 했는데...', '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물어봤어 야 했는데...'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습 니다.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 각하고 있습니다. 주로 우리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. 우 리의 마음은 완전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.

반지에 빨려들어 계속해서 "마이 프 레셔스."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골 룸을 바라봅시다. 골룸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우리 자신의 걱정과 야망, 집착과 안 락함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 습니다. 또한 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 도 있겠습니다.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놓는다면, 그 사 람들은 우리의 보물이 됩니다.

한 남자가 그의 친구를 갑자기 보러 갔습니다.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친구가 문을 열고 그 남자를 보았을 때, 그 남자는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찼습니다. "여기로 와줘서 고맙다네 친구. 내가 그리로 갈 참이었어!" 한 시간 동안 문을 열어준 그 친구는 모든 그의 걱정과 근심을 집에 찾아온 친구가 돌아가야 할 때 까지 설명했습니다. 대문에 다다랐을 때, 그 문을 열어준 친구는 친구가 방문한 목적을

기억해냈습니다. "잠깐만 기다리게!" 그가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"내가 추 측하건데, 자네는 어떤 문제가 있어 서 나를 찾아온 것 같은데, 미안하네. 자네에게 질문하나 하지 않고 나만 너무 많이 말을 했어. 나를 보러 온 그 목적이 무엇인가?" 그 방문한 친 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"지금 은 설명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. 나는 그저 자네에게 내가 암에 걸렸 다고 말하려고 왔다네. 내가 살 수 있 는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네." 여러분 은 그 말을 들은 친구의 고통을 상상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는 말라져가 고 창백해져가는 상황에서 위로를 받 으러 찾아갔지만 위로를 받지 못한, 자신의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 의 개인적인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었 습니다.

마리아여, 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준비를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. I pray 번역 원문 : George Boronat 신부

번역:정대영요셉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8weol-11il-yeonjung-je19juil/ (2025-12-16)